

주요개념 : 육아시설 청소년, 부모 체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 연구

이 양 속*

I. 서 론

육아시설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을 말한다. 현재 전국의 214개 육아시설에 총 13,873명(보건복지통계연보, 1998)이 수용되어 있다.

현재 아동 간호학은 육아시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인접학문의 기왕의 연구들은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객관화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육아시설 아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육아시설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는 전인적 간호가 성취되리라 생각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의 의미를 이해한다.
- ② 육아시설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 분석, 반성을 수행하였다.

1. 어원의 추적

孤: 子: 아들 자, 자식 자, 瓜: 외과,

오이의 덩굴이 먼저 마르고 열매(瓜)만 홀로 남듯이 부모를 일찍 여윈 아이(子)의 '외로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자(字) (권지용, 1973)

兒: 人: 사람 인 臼: 절구 구, 위가 굳지 않은 '숫구멍'의 형상

정수리의 숫구멍(臼)이 아직 굳지 않고 머리통만 크게 보이는 어린 '아이(兒)'의 모양을 본뜬 자(字) (권지용, 1973)

棄: 去(아이 거꾸로 나올 돌)과 (삼태기 필)에 八(두 손 받들 공)의 어울림.

키우지 못할 자식(去)을 쓰레기처럼 삼태기()에 담아 들고 (八) 내던진다는데서 '버리다'의 뜻이 된 자(字) (권지용, 1973)

遺: 귀할 귀(貴)에 辵의 받침

길을 가다가(辵) 귀중한(貴) 물건을 떨어뜨렸다 하여 '잃어버리다', '남기다'의 뜻이 된 자 (권지용, 1973)

* 본 논문은 2000년 2월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임

** 공주문화대학 간호과 (yslee@munhwa.kongju-c.ac.kr)

또한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고아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빠한테 버림받고, 언니한테 버림받고, 할머니한테 버림받고, 식구들한테 버림받아서... 우리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 중략...이런 명칭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다 고아잖아요. 그냥 우린 다 고아예요. 옥 고아, 뽕 고아를 떠나서 읍~ 우런다 워르워요. 워르워 고 아이 아 고아예요.”

이상과 같이 어원의 추적과 육아시설 청소년의 진술을 통해서 고아는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로서 부모나 친척이 있는 경우나 부모나 친척이 없는 경우도 모두가 고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육아시설 청소년을 심층면담한 자료

면담 전 법적 보호자인 원장에게 동의를 얻었고 참여자들에게 비밀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든지 원하면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녹음에 대한 동의도 얻었다.

면담기간은 1998년 1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각각 2-3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한 명을 제외하고 연구자의 집이나 조용한 식당을 선택하여 면담을 하였고 9명을 면담하였을 때 자료가 포화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참여자들은 9명으로 평균 나이가 16.5세 이었으며, 입소한 나이는 평균 3.5세, 입소 사유는 부모의 이혼으로 입소한 경우가 6명, 미아로 위탁 보호된 경우 2명, 부모의 질환과 생계 곤란이 1명이었고, 평균 입소 기간은 11.3년이었다.

3. 육아시설 아동의 어머니 그림 수집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 같은 육아시설에 있는 학령기 초기의 아동들에게 24색의 크레파스를 주고 어머니를 생각나는 대로 그려보라고 요청한 후, 그림을 아동학과의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하였다.

사례 A: 10살된 남자로 초등학교 2학년이며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가 키우다가 어려워져서 2년전 육아시설로 보내졌으며 부모의 이혼 전 부모와 함께 살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그림 분석: 6년간 어머니와 같이 살아서 어머니 像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어머니에 대한 감정 표현이 담긴 얼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 표현을 나타내길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머리카락의 길이로만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그림에서는 자아상에 머리카락만 길게 늘어뜨리고 어머니 像이라고 한 것 같다. 이는 어머니 상을 무시하고 싶은 욕망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사례A>



4. 문학과 예술의 육아시설 아동의 부모 체험에 대한 경험적 묘사

연구자가 수집한 작품에 있는 육아시설 아동의 묘사가 의미가 있는지를 현상학 전공 교수와 국문학 교수의 조언을 받은 후 자료로 활용하였다.

· 시의 고아에 대한 묘사

시험 때에는 연필조차 없이 빈손으로 앉는
생활에 전혀 아무 의욕도 없이
연체동물처럼 무기력해 보이는
걱정스런 우리 반 명식이
어릴 때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예순 넘은 나이로 새마을 취로사업장 품팔러 다니는
할머니랑 단둘이서 살아
도시락도 없이 빵 하나로 점심 때우고
아이들과 장난도 치지 않고 늘 말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혼자 앉아 있는
늙어처럼 고여 있는 알 수 없는 명식이
무슨 말을 물어도 대답 한번 속시원히 하지 않고
아이들 교실 떠나가게 웃어대도 좀처럼 웃지 않고
가끔가다 긴 한숨소리 어깨로 내뿜는
눈동자 희미하게 바랜 겁나는 명식이
그 명식이 주위 아이들과 더불어
오늘 영어 시험에 컨닝을 다 하였다니
걸로 야단 야단치는 척하였지만
속으로 하도 반가워
아, 안심이다, 명식이, 너 아직 살아있구나
생각할수록 하도 고맙고 신통방통해
남볼래 새록새록 기뻐진다
양정자(1993)의 「명식이」

• 소설의 고아에 대한 묘사

“...언닌 아마 평생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사랑한
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아서
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겠지. 상처받을까 봐
미리 다 피하겠지. ...”

신경숙(1997)의 「그는 언제 오는가」

“...호화스런 저택의 보호받는 딸로 신분상승을
하는 꿈이야 일찌감치 버렸다 해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부모가 교양과 품위를 갖춘 삶을 살고 있
을거라는 상상만큼은 수시로 계속하지 않았던가.”

양귀자(1995)의 「천년의 사랑」

“넌 벨도 없나? 쓸개도 없어? 사진이라면 저긋저긋
하지도 않아? 때 빼고 광내고 때때웃 입고, 배부른
척 행복한 척 웃으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었나? 선물
한 보따리 싸가지고 손님이 왔다 하면 우리 고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사진 찍힐 표정을 꾸미는 게
꼬마 배우보다 더 민첩하고 간사스러웠지. 적당히 천
진하고 적당히 가련하고, 너무 배불러 보이지 말고,
너무 배고파 보이지도 말기가 그런 사진에서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는 더러운 요령이었던 걸 넌 벌써 잊

었나?...계집애들이란 그저. 고아원에서 사진찍기 좋
아하는 건 맨 계집애들 뿐이었지. 사내녀석 중에서도
계집애같이 생긴 녀석이거나. 그렇지만 난 아냐. 난
어릴 적부터도 귀여운 얼굴이 아니어서 그런 사진의
주인공을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하고 싶어 얼씬대지도
않았어. 그렇게 찍은 사진이 우리들한테 한 번이라도
돌아온 적이 있다든? 손님 오는 날 복도에 전시되거
나 아니면 분유 몇 통, 과자 몇 박스 가지고 와서 우
리 머리를 쓰다듬고 간 자선가들이 그 사진을 최대한
으로 이용했겠지. 우리한테 되로 주고 만 데 가서 말
로 받기 위한 장삿속으로 그 중 잘된 사진은 아마 세
계 각국으로 돌았을거야. 세계 아동구호기구에서 더
많은 원조를 얻어내서 원장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선
가들이 왜 그렇게 사진을 좋아하는지 이제 좀 알겠어?
이 맹꽂아.”

박완서(1994)의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엄마가 죽은 것은 내가 여섯 살 때라고 한다. 내게
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인
지 그리움도 없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고, 내게 엄마
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은 오
히려 엄마의 존재를 한사코 감추려 하는 할머니에게
서이다.”

은희경(1995)의 「새의 선물」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슬픔이 아
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에게만이 아버지에 대한 슬
픔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내게 때
로는 분노가 되었다가 때로는 소리 없는 한숨이 되
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 마지막에는 슬픔이 된다. 상실
감.....이라고 훗날 내가 이름붙인 그 슬픔 속에서
어머니는 있다.”

한수산(1997)의 「사랑의 이름으로」

물론 처음은 아니었다. 소망원에 온 한동안 그녀는
세준에게 자주 말했었다. 엄마가 곧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1년, 또다시 1년이 흘러갔다. 그녀는 그
기약없는 기다림에 점차 익숙해졌고 아주 잊은 듯 지
냈다.”

조창인(1998)의 「그녀가 눈뜰 때」

“엄마하고 헤어진 뒤 남광 아동 일시 보호소에서 지낸 기억은 생생한데 그 이전의 기억은 조각조각난 필름처럼 연결되지 않은 몇몇 ‘장면’만 어렵풋하게 떠오를 뿐입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 “엄마, 엄마”라고 부르다가 잠에서 깬 적이 몇 번씩 있었는데 꿈속에 나타난 엄마의 얼굴은 웬일인지 좀처럼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남광 아동 일시 보호소에 맡겨졌을 때만 해도 엄마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초등학교에 들어가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을 때 나는 엄마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를 잊은 지 오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존재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은 왜 또 그렇게 많던지... 5학년때 한 친구네 집에 놀러갔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서는 친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구, 우리 아들 왔구나!”라고 하시면서. ...중략...

그리고 등교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방과후 집에 갈 때쯤 비가 오면 기분이 울적해지기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색색깔의 우산을 들고 아이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들, 같이 걸어나오다가 어머니를 발견하면 함박 웃으며 어머니의 품속으로 달려가던 친구들.”

조학수(1999)의 「세상을 들어올리는 내 책상 위의 푸른 꿈」

III. 자료 분석: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참여자들을 심층면담하여 얻은 진술과 아동의 그림, 문학 작품의 묘사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기다림

고아들은 고아원에 들어오고 난 후 부모가 언젠가는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 부모들이 고아원으로 보내면서 조만간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매일 기다리며 지내다기보다는 특히 부모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 경우 즉, 다른 고아의 부모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일이 있을 때나 정초에 보육사나 후원자들에게 세배하면서 더욱 부모를 생각하고 기다리게 된다.

“어렸을 때 부모...온다고 하면 기다리잖아요. 저는 그 때는 기다리는 것만 해요. 딱 거는 못하고 그래서 며칠동안 저 옆에 독방에 나가 있었던거 같아요.”

· 막연히 그리워함

학령전기에는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리워한다. 본 연구자가 참여 관찰한 바로는 부모가 심하게 학대하여 주위 사람들이 보다못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아원에 위탁 보호된 아동들도 입소하고 난 직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살게되어 학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면서 좋아한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고아원의 생활에 적응이 되면 부모의 학대는 잊어버리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나는 꿈속에서 엄마, 아빠를 보았다. 꿈속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엄마, 아빠라고 소리쳤었다.”
(참여자의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

· 부모를 상상함

고아들은 친구들의 부모를 보면서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모를 상상을 하게 된다. 이 때 상상 속의 부모는 굉장한 부자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의 집은 크고 자가용도 좋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 자가용을 타고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갈 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 때는 동아가신지 몰랐거든요. 언마하고 아빠가 부자가 돼가지고 오신거예요. 나하고 동생하고 딱...그렇게 생각했어요. 집도 나쁜대로 상상하면서 집도 큰 거예요. 유즈윌은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데... 머리 속으로 맨날 생각하는 데 ‘내 부모가 억만장자가 돼서 나타나면 어떡까?’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 ‘내가 가서 돈만 엄청 물어내고 내가 돈망가러라’. ‘부모랑 살겠다’ 그런 생각은 죽어도 안하고 ‘매달 한 달에 백만원씩 물어내러라’ 이런 생각만 하지요.”

· 친구 부모를 보며 그리워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고아원에서 같은 처지의 고아들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집의 아동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같은 반에 있는 가정집 아동들을 보면서 자기 부

모를 생각하고 간절히 부모를 그리워하게 된다. 이런 감정은 가정집을 ‘깡집’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깨가 쏟아진다는 말은 해석하더라구요. 부모랑 잘 지내고 재밌게 살으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박혀있죠. 부모가 잘 대해 주고 그런거 있죠. 이상적인 경로 생각했죠. ...중학... 비용 때문 국면학교는 다 부모 오잖아요. 그럴 땐 아~ 맨날 비 맞고 가네. 아~ 그런 거요.”

“어려서 깡집 보고 부러워하는건 당연하죠. 가정집 애들이랑 섞여 있고 그랬잖아요. 머리 예쁘게 묶고 끈 같은거 하고 도시락 반찬도 맛있는거 싸오고 점심시간에 애들은 도시락 싸오는데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런 거 보면서 딱 가정집에서 살고 싶구요.”

“초등학교 때는 언니가 자기들 데리러 타주길 되게 바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리고 또 5월8일 어버이날 그럴 때도 학교에서 많이 린들어 하구요. 그리고 또 편지쓰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구요. ...초등학교 때는 나가서 발표하는데 부모님 앞 계시잖아요. 자기 부모님 뭐 그런거 발표할 때. 그 때 그냥 괜히 쪽 팔렸을거예요. 나가는거조차 싫었으니까요. 국면학교 한 4,5학년때까지는 그런게 싫었어요. 나가는게... 소풍가서는 나 혼자 딱 가고.”

· 원망함

고아들은 가정집에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를 상상하며 그리워하고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지만 부모가 오지 않아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리움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원망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춘기 중기에 최고도에 달하게 된다.

“근데요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로 떨어져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바깥자 저만 혼란할거예요. 언니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기억도 안나니까 더 한나는거죠. 얼굴 한 번이나 봤어야지...말이 안나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돼요. 너무너무 생각하니까 터트려려고 해도 도저히 터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오랬니까 하나도 자랄 때... ... 중학... 언니를 원망하죠... 몰라요. 언니가 미워요. 그냥... 감정적으로는 언니가 미운데요. 하여튼 이상하게 언니가 저에게 잘해줬다는 기억이 있으면요 그렇게 멀지 않음텐데요. 언니가 떠나시고 아버지께서 계속 오셨으니까 기

억이요 아빠한테만 있잖아요. 언니한테는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미운 거 같아요.”

“언니는 그냥 미워요. 언니는 7살 때 찾아온 다음에 가충했다 같이 가자는 말 했어요. 그런데 동생만 가구 동생만 데리고 갔어요. 언니하고 동생만 사니깐요 그게 멀다는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식구 다 데리고 갔으면 괜찮았을텐데 동생하나만 데리고 갔으니까 멀다는거죠.”

· 잊혀짐과 포기함

고아들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된다. 부모의 얼굴을 기억했던 고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얼굴을 잊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잊는 것이 편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부모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

“듣는 얘기에 의하면 다시 애들을 많이 낳았다고... 량머니가요. 그야 그렇구나.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렇구나.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사춘기라서 언니가 되게 보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 때는 원망도 많이 되고 ‘왜 버렸나?’ 3학년 되니까 지금은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중학...이해는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포기한거 같애요. 미움도 이젠 없구요. 무관심한 거 같아요.”

“전요 여기에 오래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주로 나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고민한 적은 진짜 없어요. 언니 아빠 사셨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이모네 있었던 기억은 나요. 이모네가 슈퍼했던 기억은 나요. 그러움도 미움도 원망도 없고 그냥 잊고 살아요.”

· 살짝 보고 싶어함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익숙해지면서 고아원 생활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명절이나 방학 때 친척집에 가서 친척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며, 부모에 대해 듣거나 자신의 기록을 통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그저 단순히 보기는 원한다.

“특히 언마를 찾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찾았는데 나를 뵈면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어떤 오빠 저희 집에 있던 오빠 있었거든요. 아빠 찾았는데요. 자기 아빠 아니라고 해가지구요 뵈면해 가지구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연산인가?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 오빠가요 마음고고 익히려고 아빠를 찾았는데 잘 살아 가지고 찾았는데 그 아빠가 ‘나 네 아빠 아니다’ 그래서… 언마가 저를 뵈면해까봐… 언마나 잘 살을지… 찾아오는건 좋은데 찾아가고 싶진 않아요. 땀지 상처받은거 같애요. 언마를 찾아가면 반가워하지 않거나, 가난하게 살고 있거나 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까봐… 그렇지 않다 해도 찾아가기 싫어요. 나를 버렸는데…(눈물을 흘리고 휴지 한 코를 킁다)”

“언마 아빠에 대해선… 근데 행동을 할 때요 ‘우리 언마도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본적은 있어요. 딸은 딸이니까…그러니까 지금 언마를 보고싶은게요 나 양 이런거 빼문이지요. 뭐 별로 그리움이랄까 그런거 때문은 아니었던거 같아요. 이 때까지. 한 번 보고 싶어요. 영국두요. 할머니가 내가 언마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런거…저랑 동생도 사슴들이 똑같이 생겼다는데 안 똑같잖아요. 똥똥하까? 어떤 테스트같은 거 해봤는데 중년비만형이래요. 제가 어려서 티게 딸났었거든요. 진짜 딸났었어요. 거의 그런 식이어서 중년쯤 되면 똥똥한 아줌마가 되어 있을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마도 혹시 똥똥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 부모를 뵈을까 두려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경우의 청소년은 부모의 부정적인 면을 뵈을 까봐 두려워하고, 부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렴풋한 기억이나 자신에 관한 기록을 통해 알게 된 부모의 행동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하였거나 가출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고아원에 보내진 것처럼 자신도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식을 고아원에 버릴 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즉, 부모의 운명을 따라 갈까봐 두려워한다.

“…아버님을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자식이요 아빠 성격은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구 아버지가 했던

습관들 그런 것도 본받는다라고 본받는데 아니라 닮는다… 저항에도 있어요. 아빠는 술, 담배, 다 하셨거든요. 전 지금은 담배밖에 안 하는데요 술은 제가 못먹는 거 알고 일부러 안하려고 지금 노력하고요. 술 먹어도 재미없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담배처럼…담배를 처음 피게 된게요 형등하고 담배를요 숨어피는 재미로 폼했어요. 그게 재미있어 가지구 처음엔 그랬는데… 딸을까봐 걱정돼요. 담배피고 술 먹고… 그런 다른 건 자신감이 없었던 거… 다른 사람… 공공장소에서요 눈치를 안보거든요. 전 좀 찡피해 하거든요. 사람들 있는 시선용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어렸을 때라 그런지요 버스를 탔으면 다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앉음데가 없잖아요. 그런 뒤에 앉아 가지구 그냥 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구 찡피했어요. 집에 술 먹고 오서 가지구 내가 보는 앞에서 주정을 하신 때는 좀 찡피할 수도 있을 거구요. 그 때는 찡피보다는 지나갔을 때는 가여웠어요.”

“근데 가끔 생각할 때요 언마가 보고 싶기는 하는데 그러운 때문에 보고 싶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하나? 가끔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요 땀지 언마가 된 기분…그러니까 언마도 이 상황에서 나처럼 하…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자식을 버릴 것인가? 하면은 땀지 그렇게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내가 또 그렇게 반복되는건 아닌가? 그런식으로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언마처럼 한 번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생각…가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같은게 있잖아요. 하 나년을 뵈으면 그런게 끊긴다고 하잖아요. 가게에 또 도둑놈 집안에는 도둑놈만 있는 것 처럼요. 우리가제도 혹시…아빠도 그런 식으로 하셨고 저희 식구들 박도요. 그다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러면 어떻하나…”

• 스스로 위로함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며 스스로 위로하게 되고, 어려서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 단계가 되면 고아들은 이런 모든 상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부모에 대해서 담담한 마음이 된다.

“옛날에 어떤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 언마가 와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했을 때는요 아우~우리 언마도 뺏으면 좋겠다고 뻔 날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안 오는 걸 알고... 나 가족 없는 거... 저도 그때만 티도 몰고 고아나 마차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말했어요 차라니 이게 낫다고...”

“그게요 어렸을 때는요 ‘왜 그랬나?’ 생각이 안 되다가요 자라게 되면서요 ‘왜 그랬나?’ 생각하면은요 아빠 집에 갈 때나 누나나 형 만날 때나 그럴 적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아니 억만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중략... 아빠를 좋아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이 목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걸(원망)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건 몰라서 그런다’... 내가 만약에요 △△원에 딱 들어와서요 아빠 있는데 안 오면은요 다음부터는 안 찾았으면은요 내가 △△원 나가서요 나는 아빠 안 찾았을거예요... 찾아가고 얘기도 하고... 찾아오신게 아니구요 ‘어디어디로 타나’ 딱 그러구... 나가면 비쳐지고 그러니까요. 비쳐지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구... 알 수 있고...”

• 운명으로 돌림

사춘기 후기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고아가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단지 운명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처지를 상처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없구요. 운명이예요. 운명. 이미 그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거죠. 그대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해져 있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깐 편하죠. 앞으로든 열심히 살아야죠.”

“전요 제가 여기 사는 것도요 가끔씩 싫을 때요 ‘언마 아빠는 왜 나를 여기다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구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살게 됐을까?’ 이런 것은 생각했는데 ‘언마 아빠가 왜 나를 이런 곳으로?’는 생각 안해 봤어요. ‘운명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을까?’ 내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일까?’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언마 아빠는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은 안해 봤어.”

• 사람을 믿기 어려워짐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 주고 길러주었어야 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기억은 호의를 가지고 대해 주는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기가 어렵게 된다.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 없이 잘해주는 것이 믿어질 경우에는 정말로 고마워하며 의지하게 된다. 또한 스스로 사람을 믿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 외로워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거든요. 상대방에서요 저희에 대해서요 먼저 그거 해주면요 마음을 열어주고 얘기해주면요 많이 학탕 당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위로받지 않는데 그냥 속에 있는 말 딱하고 그래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않게 되면은요 그때는... 먼저 여는게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그게 있나 봐요. 어렸을 때 우리 버렸다고 생각되면요 누구한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떨지 않는 거죠, 사냥들을... 부모가 날 버렸는데 말을 사람이 어딴냐.”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 우리들은 무슨...감식, 아니 물건 같은게 딱 들어오는데요 꼭 크리스마스 때 딱 꼭 타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음식들도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딱 우리한테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해놓고서는 사진 찍어 먹는 것 사진 찍고 이러면 기분 나쁘고 먹을 때 사진 찍으면 정말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에 최소한의 물건 같은 것을 보내줄 때 ‘아이고 동정이다’하고 생각했거든요. 동정이고 저것도 보이기 위한 수단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있는데...”

• 감정이 메말라짐

부모에 대해 감정이 없어지는데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다리다 지치게 되면서 서서히 감정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부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서 모든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감정이 메마르게 된다.

“정확하게는 안 떠오르구요. 몇 번 본 거 같아요. 근데 약간은 떠오르는 거 같고 그러면서... 봤다 안 봤다...”

여기서 살면서 부모님이나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건 없었어요. ...중략... 감정이 메달려지니까요. 그런 것 저는 원래 그냥 그런 것 슬퍼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워서 우는 것은 있어도... 이런 거 얘기해도 하나 슬픈 것 같은 것 없었어요. ...부모에 대한 감정이 메달라 버렸죠."

"(아빠 언마에 대해서)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서러운 생각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 슬프겠다' 뭐 되게 막...근데요 다른 애들하고 생활하는 거 똑같은데. 전혀... 그런데 누가 '너 언마 있냐?'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데 '없어'하고 나면 그래도 붉어져도 서러운 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하도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랑 같이 사는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어찌다가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런 애들 하고 감정이 틀리죠. 개네들은 아버지가 싫고 좋은게 있겠지만 나는 그런게 없어요. 있는건만 자체양도 기쁘죠. 여기 있는 애들 보면 아버지 없는 애들이 많은데... 꼬마였을 때 딱 한번만 아버지가 미워했던 적 있었어요. 보고 싶어갔구 그랬죠. 그 때 미워한다고 생각한 때가 그 때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3,4학년 때 그 때는 아버지가 보고싶어갔구요 그런데 안오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때는 그렇게 했구 그 다음부터는 그런거 없어요. 같이 지내봤어야죠. 감정이 있을 수 없죠. 아버지가 없는데 뭐 미워하고 그대요. 아무 계기도 없이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 마음을 열기 어려워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부모처럼 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기 어려워지며 다른 사람이 접근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 부모님이 버렸다는 거... 양개 모르게 그런 거... 부모님이 버렸다는 게요 근새 내가 자라면서 막 그러잖아요. △△원에, 고아원에 사는 애들은 마음도 여리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 중략...그런게요 다른 사람한테요 마음 쉽게 못 열고 그런거 때문에 ...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것 같구요. 안여는거 같애요. ...중략..."

'참 외롭다. 나 혼자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거. 그런거 있죠. 고원할 때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거... 마음이 달혀갖고... 사람이 누가 진실로 말해도 그냥...진실로 말해줘도 안 대하죠. 자기 안에 있는 말 안꺼내죠. 그게 마음이 달렸다는건데요. 내가 친들거나 그걸 때 아무도 없다는 생각들 때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충분히 말할 사람은 없고...그럴 때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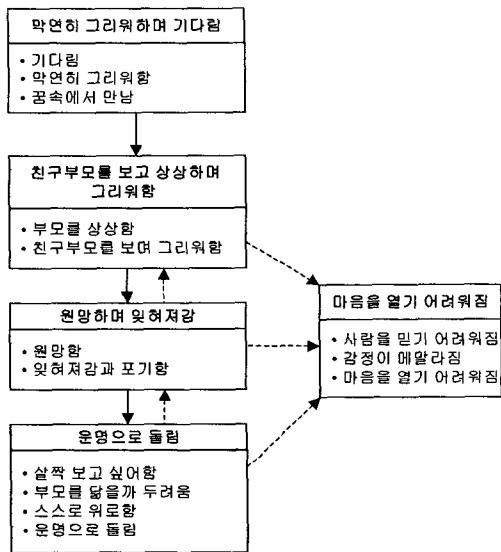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거든요. 상대방에서요 저희에 대해서요 먼저 그거 해주면요 마음을 열어주고 얘기해주면요 많이 학타 달는 말이 있거든요. 그 때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외로운 거 같지도 않은데 그냥 속에 있는 말 딱하고 그대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않게 되면은요 그때는... 먼저 여는 게 친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그게 있나봐요. 어렸을 때 우리 버렸다고 생각되면요 누구한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뭔지 않는 거죠, 사람들을... 부모가 낳 버렸는데 멀음 사람이 어딴냐."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얻은 본질적 주제를 참여자의 연령, 성별, 입소 원인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료를 읽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막연히 그리워하며 기다림>,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 <원망하며 잊혀져감>, <운명으로 돌림>같은 4가지 본질적 주제들이 이런 참여자의 여러 요인 중 연령을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체험의 본질적 주제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육아시설에 입소한 확령전기에는 부모에 대해 <막연히 그리워>하며 기다린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서부터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의 진행은 일방향이다. 확령기의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은 사춘기 초기에 들어서면서 <원망하며 잊혀져감>으로 진행이 되며, 이 단계의 진행은 이진단계로 왔다갔다하면서 여러 주제들이 혼합되어 나타나지만 주 흐름은 진행이 된다. 사춘기 후기에는 서서히 회환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운명으로 돌림>으로 진행이 되며, 역시 왔다갔다하는 모양으로 진행이 된다. 이와 같이 회환되기도 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띄므로 한 시점에서 여러 주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상충되는 주제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리적 갈등이 매우 심하게 된다.

<마음을 열기 어려워짐>은 대체로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하여 <운명으로 돌림>의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서 두가지 주제가 거의 중첩되는 모양을 띄게 된다.

되기 시작하면서 <운명으로 돌림>이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마음의 가장 바깥 층에 덮인다. <마음을 열기 어려워짐>은 <그리워함>의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하여 <운명으로 돌림>과 중첩되는 모습을 띄게 된다.



<그림-1>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의 본질적 주제

부모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의 본질적 주제

그림-2와 같이 <그리워함>은 육아시설에 들어오게 된 초기부터 증가하여 최고도에 달했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마음의 저변에 깔리게 된다. <그리워함>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원망하며 잊혀져감>이 시작되며, <원망하며 잊혀져감>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그리워함>의 마음 위에 덮인다. 그리고 <원망하며 잊혀져감>이 감소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부모 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육아시설에 입소한 유아기나 학령전기에는 부모에 대해 <막연히 그리워>한다. 이 그리움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의 진행은 일방향이다. 학령기의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은 사춘기 초기에 들어서면서 <원망하며 잊혀져감>으로 진행이 되며 회환되기도 하여 왔다갔다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

사춘기 후기에는 서서히 회환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운명으로 돌림>으로 진행이 되며, 역시 회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회환되기도 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띄므로 한 시점에서 상충되는 여러 하위 주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여 그 때는 심리적 갈등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마음을 열기 어려워짐>은 대체로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하여 <운명으로 돌림>의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간호 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육아시설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그들의 입장에서 부모 체험에 관한 생생한 실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육아시설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간호 이론의 측면에서는 육아시설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부모 체험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사고, 방법을 제시하였다.

간호 실무 측면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존의 육아시설 청소년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세계를 살펴볼 수 있었고, 실무에서 간호과정을 적용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기질을 마련하였다.

간호 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기존의 가족 중심의 아동 간호 교육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육아시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있게 성장발달 시킬 수 있도록 간호중재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육아시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 체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V. 참 고 문 헌

- 강복정 (1998). 시설 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동좌 (1992). 시설아의 일상 생활세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용 (1973). 字源圖解: 국제실용한자명해. 서울: 수지서림
- 김 정 (1989).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서울: 창지사
- 박완서 (1994).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서울: 세계사.
- 신경숙 (1997). 동인문학상 수상작품집-그는 언제 오는가. 서울: 조선일보사
- 양귀자 (1998). 천년의 사랑. 서울: 도서출판 살림
- 양정자 (1993). 아이들의 풀잎노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유 현 (1998). 가정아동과 시설아동의 자유화 및 인문화 표현특징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0). 후설.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인구통계 연감(1998). 통계청
- 은희경 (1995). 새의 선물. 서울: 문학동네.
- 정호승 (1998).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서울: 열림원
- 조창인 (1997). 그녀가 눈뜰 때. 서울: 제일미디어
- 조학수 (1999). 세상을 들어올리는 내 책상 위의 푸른 꿈. 서울: 문예당
- 주수일 (1986). 부산지역육아시설 아동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산 (1997). 사랑의 이름으로. 서울: 문학사상사.
- 한전숙 (1998). 현상학. 서울: 민음사
- 홍문표 (1987). 현대시학. 양문각
- J. M. Morse & P. A. Field (199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 신경림 역 (1997). 질적 간호 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vale, S (1995). Interviews. 신경림역(1998). 인터뷰. 서울: 하나 의학사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역(1994). 체험연구. 서울: 동녘

-Abstract-

Key concept : Orphan, Lived Experience of par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rphans' Lived Experience of Their Parents.

Lee, Yang Sook*

There are currently 214 orphanages in Korea which house approximately 13,873 orphans aged between 3 and 18; this accounts for about 0.12% of all children in the same age range. Some have lost their parents, but most have come after their parents divorced or broke up. This means majority of the children in Child Care Centers have parents.

Traditional virtue of obedience to parents (Hyo) was regarded as one of the highest value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Culture College.

in Korea.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was regarded as basic human nature that parents look after,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eir children until they become one of the matured social member.

Raised without having a chance to realize their filial duty and not having been cared for by their parents, most orphans feel that they lack something in their lives when compared with friends. In the end, they live their lives longing for their parents and go through mental discord about their parents.

This paper is focused on understanding orphans' experience and views on parents.

I approached the issue by apply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interviews, along with other reference material were phenomenologically reflected to draw essential themes as follows;

1. Orphans of pre-school age hazily long for parents without having any practical image of their parents.
2. They occasionally dream meeting their parents with image that can only last in their dreams, and this continues up through middle school.
3. At the age of elementary school, they crave the image of parents as they see their friends with their parents.
4. They start to despise their parents for having abandoned them when they reach puberty.
5. Meanwhile, as their vague image of parents fade away, they attempt to give up their thoughts toward their parents.
6. Highteens start to think in terms of fate.
7. They don't long for their parents anymore as they used to, but still wishes to meet them at least once. However, they don't want to start any kind of a relationship with them.
8. They fear that they will also fail in raising families of their own, and making their children orphans too, just like their parents have. They simply don't want to follow their footsteps.
9. Thinking that they were abandoned by their parents, they are reluctant to believe other people.